

# 북한개발소식

2024 AUG

08

통권 226호

## 이달의 주제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동북아 정세와 북한 선교

## 탈북민 수기

손이슬 자매 (제 5화)

## 북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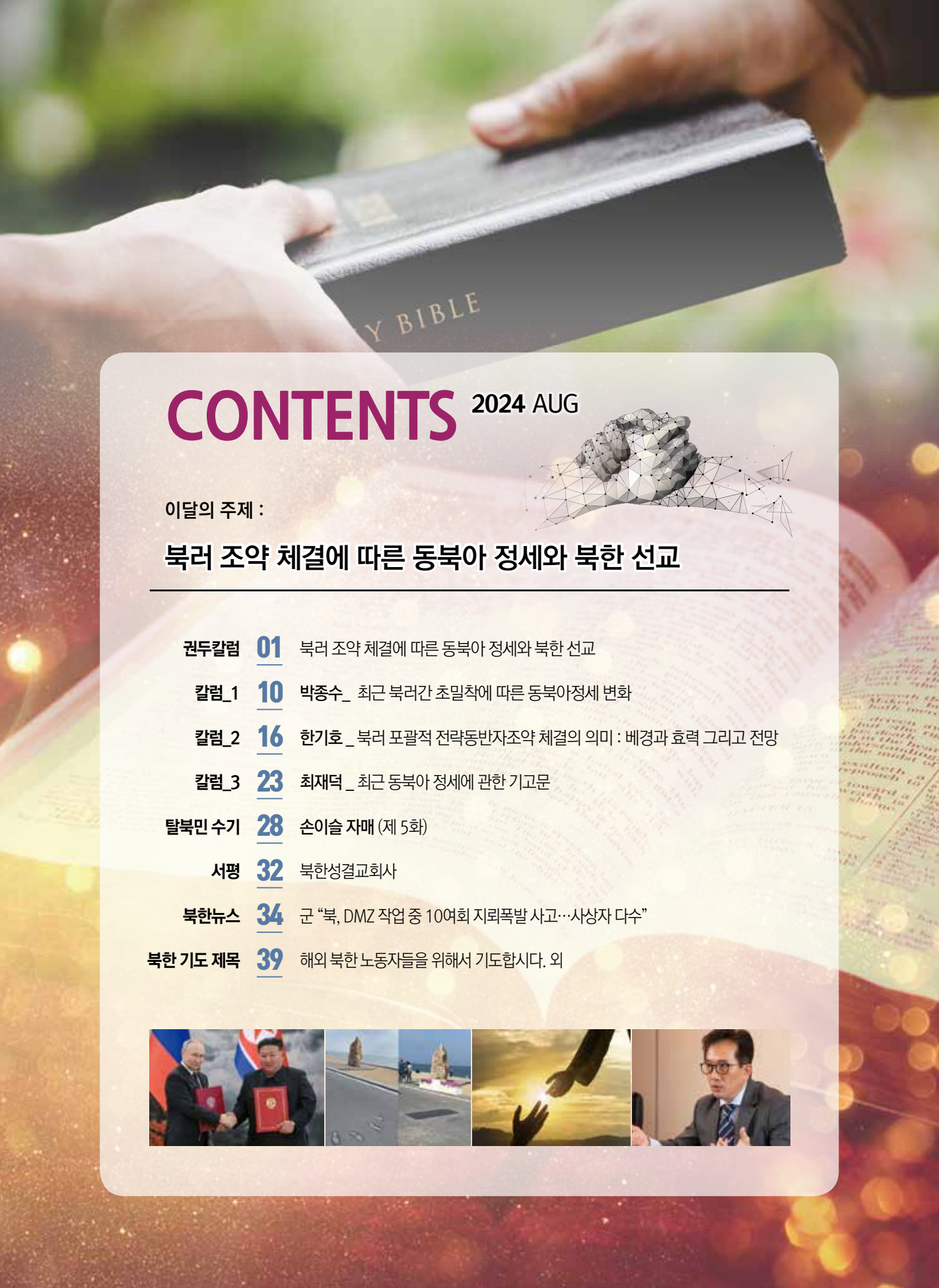
군 “북, DMZ 작업 중 10여회  
지뢰폭발 사고…사상자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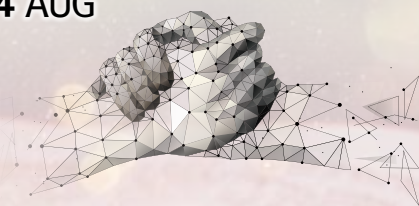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CONTENTS 2024 AUG



이달의 주제 :

##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동북아 정세와 북한 선교

- 권두칼럼 **01**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동북아 정세와 북한 선교
- 칼럼\_1 **10** 박종수\_ 최근 북러간 초밀착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
- 칼럼\_2 **16** 한기호\_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 체결의 의미 : 배경과 효력 그리고 전망
- 칼럼\_3 **23** 최재덕\_ 최근 동북아 정세에 관한 기고문
- 탈북민 수기 **28** 손이슬 자매 (제 5화)
- 서평 **32** 북한성결교회사
- 북한뉴스 **34** 군 “북, DMZ 작업 중 10여회 지뢰폭발 사고…사상자 다수”
- 북한 기도 제목 **39**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



권두칼럼

##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동북아 정세와 북한 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지난 6월 1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방문하였다.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은 회담을 진행하고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총 23개조로 이루어진 이 조약은 제 4조에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볼 수 있는 조항으로서 양국관계가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채 하루도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여파는 컸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약 체결에 큰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 외교적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북러 관계가 더욱 밀착되고 이에 따라 국제 정세가 움직이는 가운데 북한 선교 환경도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인 선교사의 활동 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북러 밀착 관계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그 파급력과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 및 양국 간의 조약을 통해 앞으로의 정세를 전망해보고 이에 따른 북한 선교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과 북한

지난해부터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장기화되는 대





〈6월 19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담은 조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제재를 극복하고 경제를 유지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북한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서방세계와의 교류가 끊기는 와중에 군수 물자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했던 러시아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밀착 관계에 대해 북한은 ‘신냉전’을 거론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대립각을 세웠지만, 외부에서는 이들의 협력

이 결국 ‘탄약’을 매개로 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그렇지만 양국이 준동맹관계 수립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협력 관계가 예상보다 더욱 장기적 시계열의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사실상의 동맹관계’는 외교적으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약에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으로 평가되는 조항을 포함한 만큼 북한 당국은 안보적으로 든든한 배경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조약을 기꺼이 북한에게 선물한 러시아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전히 러우전쟁에서 소모되는 탄약과 무기들을 무기 체계가 호환되는 북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이겠지만, 이번 조약 체결은 러시아의 의도가 군수 물자 보급 그 이상임을 보여준다.

관련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세계와의 교류가 끊어지고 국제 통화 결제 시스템 (SWIFT) 이용도 불가능해지는 등 서방의 제재가 이어지자, 국가 운영의 방향을 기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 대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다극화된 국제질서 재편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한다.<sup>1</sup> 일반적으로 현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 또는 미중의 양극 체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러시아는 이들 양자만이 아닌 러시아가 포함된 미중러 3극 체제 내지는 다극화된 다극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즉 ‘루스키 미르(Русский мир, 러시아 세계)’를 강조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다극화 진영 구축을 꾀하고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의 주요 골자이다.<sup>2</sup> 이러한 개념은 최근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푸틴 집권 이후인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미국 중심의 유럽 안보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팽창은 심각한 도발이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비춰왔다. 이러한 인식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합병으로 표면화되었고 서방세계와 러시아와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이번 러우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서방세계로부터 대대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지만, 러시아는 그들과의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외교 노선에 대해 현승수(2024)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포기하고 러시아의 미래를 동방, 아시아, 중국에서 찾고자 한다’고 평가했다.<sup>3</sup>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방의 금융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인도와의 거래에서 자신들의 루블화와 중국 위안화, 인도 루피화를 사용하며 탈달러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조약 체결은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에 있어 북한이 단기적인 파트너가 아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이미 북한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러우전쟁에서의 안정적 군수 물자 공급처로서 북한은 러시아에게 중요한 협력 국가가 되었다. 이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는 다시금 동방으로의 활로를 모색하는 러시아의 주요 과업인 시베리아와 극동지방 개발에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2013년 라진항 3호 부두 터미널을 현대화하고 3번 부두 운영권을 49년간 확보한 상태이다. 극동지방 물류를 담당하는 블라디보스토크는 완전한 부동항이 아닌데다가 이미 항만시설이 포화상태인 만큼 러시아에게 라진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거기에 더해 극동지방의 부족한 노동력을 북한의 노동자들로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점이다.

이러한 가시적인 이득 외에 북러 관계 밀착이 가지는 효과 중 하나는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이다. 러시아는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계의 제재로 인해 그 위상

1 이상준, 서동주 (2024), “러우전쟁 이후 북러 밀착과 전략적 이해”, 러시아연구 제34권 제1호, 203-235.

2 위의 글, 206.

3 현승수(2024), “푸틴의 평양방문과 러·북 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42 (2024.06.24.), 7.

4 위의 글, 3-5.

이 약해진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분명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나 규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러시아는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엔 차원의 제재나 규제는 준수하겠지만, 서방 세계가 중심이 된 추가적인 제재 부과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러시아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북한을 포용하는 모습을 통해 유엔으로부터 제재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은 정상 회담 직전인 6월 18일 노동신문에 실린 푸틴 명의의 서신<sup>6</sup>에서도 드러난다. 서신에서 푸틴은 과거 북러의 역사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북한의 러시아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다극화된 세계 질서 수립’과 이를 저애하는 “서방집단”의 욕구에 북러가 함께 대응할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또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체계를 발전시키고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보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 북한과의 밀착 관계가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임을 표현하였다.

## 북러 밀착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

북러 관계 밀착에 따라 중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자신과 묶어서 하나의 블록으로 자칭하고, 미국에 대응하는 소위 ‘신냉전’ 구도를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북한 모두의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미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 쪽 편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중러 삼각 체계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러 관계 밀착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이다. 중국 관영언론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보도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는 “북러 교류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과도한 밀착에 불편해 하는 기색을 내비쳤다.<sup>7</sup>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처한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세계로부터 불량국가 취급을 받고 있고 혹독한 경제제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세계에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데 대한 당위성이 충분하다. 그렇지만 글로벌 파워를 지향하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중러 진영에 얽매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서방세계를 주요 무역 파트너로 삼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처럼 강경한 입장일 수 없다. 미국 패권 종식과 글로벌 다극 체제 구축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각각 전쟁과 핵문제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북한과 굳이 한 배를 타서 같은 불량국가 취급을 받는 위험을 떠안고 싶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북중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전진 배치 및 한미일, 그리고 호주와 필리핀까지 포함한 안보협력 강화라는 역반응을 일으켜 동아시아의 지역 분쟁으로 확대될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차이 뿐만 아니라 북러 관계 격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보적 지위가 격하되는 것 또한 중국에게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러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북중 관계는 뼈저리게는 징후를 보였다. 올 5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와 3국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은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정상급에서 채택한 문안을 북한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3국 공동선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3국이 명확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도출된 현실적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중국도 참여한 정상급 결과물에 포함된 것 자체가 북한에는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sup>

한편 중국도 북한에 대해 불편한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018년 5월 중국 다롄(大連)방문 당시 시진핑 주석과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발자국 동판’이 올해 초 제거되었다. 두 정상의 발자국을 본떠 만든 기념물이 철거되었다는 것은 시 주석의 승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에는 중국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킬 것을 요구하였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여 이

5 이상준, 서동주(2024), 앞의 글, 217-218.

6 “노동신문”에 게재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사, 주한 러시아 대사관 홈페이지 (2024.06.18.), <<https://korea-seoul.mid.ru/ko/press-centre/news/emabassynews-240619-kor/>>

7 중러 정상, 반미연대 확인 속 미묘한 입장차…전문가 “중국 견제로 북러 밀착에 한계”, VOA (2024.07.05.), <<https://www.voakorea.com/a/7686214.html>>

8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236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눴던 다렌 외곽 휴양지 방추이다오 해변에 설치된 양 정상 발자국 동판(왼쪽)과 동판이 철거된 모습(오른쪽). (사진=중앙일보)〉

를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부정하는 일도 있었다.<sup>9</sup> 이미 북한이 러시아를 시작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음에도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재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양국 관계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sup>10</sup>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북러 관계 밀착을 반대하거나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러 밀착이 중국에게 나쁘기만 한 소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서방 세계가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첨단 기술 공급망을 통제하며 대만과의 통일이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만큼,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일극 세계질서에 대항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처지라고 보았다.<sup>11</sup> 미 싱크탱크 스티븐슨센터의 윈 쉐(Yun Sun) 역시 북러 관계가 반미 연합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으로부터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보았다.<sup>12</sup> 두 나라 모두 여전히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것도 사실이다. BBC 중국 특파원 로라 비커는 북한과 러시아 모두 동맹국으로 보이고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두 나라 모두 중국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꼬집었다.<sup>13</sup>

## 북한선교와 우리의 대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러가 준동맹관계로 볼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의 북러 밀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가 구상하는 글로벌 전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러시아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감쌀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움직임은 한반도 정세 뿐 아니라 북한 선교에도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북러 밀착은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은 북한이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미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3월 푸틴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에 별도의 핵우산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한 발언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이기도 하다.<sup>14</sup> 북핵 문제 해결의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군사정찰위성,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전수할 가능성 역시 크게 우려스러운 점이다.

그 동안 러시아에서 사역해왔던 한인 선교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러시아는 이번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한국이 이를 차분히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조약 체결에 즉각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로의 살상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라는 강수로 대응했다.<sup>15</sup> 당분간 한러 관계가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양국 관계는 러시아의 한인 선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에서 탈북자 사역을 해오다가 올해 초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 중인 백 모 선교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당국이 한인선교사들을 대하는 태도는 전보다 더욱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이다. 북러 협력이 활성화되면 극동 러시아 지역을 향한 북한 노동자의 유입이 더욱 활발해지고 그 밖에 다양한 경제 협력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러시아를 왕래하거나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 및 주민들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한인 선교사들이 이를 선교 대상자들과의 접촉점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기에는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 북러 협력 방향을 생각해보면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에 북한이 함께한다고 볼 때 북한과 제 3세계와의 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글로벌 사우스로 일컬어지는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주요 국가들은 중국 외에도 브릭스(BRICS)로 불리는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

9 “중국 내 北노동자 ‘전원귀국’ 요구…中 “소설 쓰지 말라”(종합) 뉴시스 (2024.07.0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9\\_0002804867](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9_0002804867)>

10 “북중 관계 소설쓰지 말라”는 중국…그런데 관광객은? [뒷북뉴스], KBS뉴스 (2024.07.1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0882>>

11 홍현익, “북·러동맹 복원과 한국의 대응”, 세종포커스 (2024.06.27.), 2.

12 中, 북러조약 득실계산은…싱크탱크 “다 나쁜 소식만은 아냐”, 연합뉴스 (2024.06.22.),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2026100009>>

13 특파원 분석: 북러 관계의 진정한 힘은 ‘중국’에 있다, BBC News 코리아 (2024.06.20.),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1rrx79vqjno>>

14 푸틴 “북 자체 핵우산 갖고 있어”…김정은 원했던 그말 나왔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2024.03.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4953>>

15 러 “북러 조약, 한국 겨냥 아니다…한국 차분히 수용하길 기대”, SBS 뉴스 (2024.06.2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97471](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97471)>



〈2018년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

에 동참하지 않는 등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왔다. 또한 이들 국가는 북한과도 비교적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이들과의 교류는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언제든지 교류가 회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국가들에는 상당한 기독교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브라질과 남아공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 역시 비록 국가 내에서는 소수 종교이고 박해

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3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 선교에 있어서 제3세계 지역 교회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러시아와 중국 교회뿐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교회 역시 중요한 북한 선교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의 기도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앞으로 북한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라는 ‘뒷배’를 믿고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차기 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놓이게 하려고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반도의 평화와 군비 경쟁 완화, 그리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자.

앞으로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하자.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취약점도 상당하다. 이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교류는 양국 모두 지하자원 수출이 중심인 경제 구조상 제한적이었다. 현재는 전쟁으로 인해 물자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무기체계에 호환되는 다량의 탄약과 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양국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러우 전쟁이 종식 된다면 군수 물자 중심의 교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가 기대하는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11월에 있을 미 대선도 큰 변수이다. 러우 전쟁의 조기 종식을 외쳐왔고 타 후보에 비해 북한과도 연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될 경우 동아시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미국의 씽크탱크들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북한 선교와 통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풀어지도록 기도하자.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자. 북한을 향한 비전을 품고 부르심을 따라 나선 선교사님들에게 최근 북한 선교 환경은 녹록치 않다. 북한 선교를 위해 체류해야 하는 국가들은 점점 더 안정적인 거주와 사역이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 사람들의 외부로의 왕래도 국가 간 역학 관계나 북한의 정책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예상되었던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선교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사역을 포기할 수는 없다. 과거에 비해 줄어든 기회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북한 출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하교회를 돕는 일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사역에 참여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

북한 선교를 위한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특히 제3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기도하자. 북한에서 기독교는 주적인 미제의 종교라는 명목 아래 탄압을 받는다. 남한이나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비록 선교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북한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그 진의가 정치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 쉽다. 하지만 제3세계 교회와 교인들은 북한이 기독교에 씌워온 이러한 미제국주의라는 프레임에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이들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인적 왕래도 활발해지고 더 많은 접촉점이 생길 것이다. 비록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을 방문하고, 또 자기 나라에 찾아온 북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실한 기독교인 친구가 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 한국 교회는 제3세계 교회들이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북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알아야 할 북한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그에 따라 선교 현장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간에도 중단 없이 진행 중이다. 우리의 지혜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시선이 북한과 그곳의 고통 받는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계심은 분명하다. 한국 교회가 상황의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의 틈을 발견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순간에도 수고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기도하며 힘을 보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한다. 

# 최근 북러간 초밀착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

박종수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 푸틴은 왜 북한에 갔는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북한을 방문했다. 평양에 머문 시간은 불과 22시간이었다. 방문은 짧았지만, 파장은 길었다. 방북 1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진이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푸틴의 3일간 북한·베트남 방문이 “미국을 화나게 했고, 중국을 약화시켰으며, 아태 국가들을 혼란케 했다”고 보도했다. 그가 2001년 7월 방북 후 오키나와 G8정상회담장으로 직행했던 때와 비슷한 분위기다. 이번에도 그는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6월 19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먼저 러시아 입장에서 살펴본다. 현재 러시아는 전쟁 당사국이다. 그것도 단순히 인접국 우크라이나와의 국경분쟁이 아니다. 소련 해체로 30여 년간 단일패권을 누리온 미국과의 진검승부 대리전이다. 푸틴은 2000년 5월 취임직후 “소련해체를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가슴이 없고, 소련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머리가 없다”면서 ‘강한 러시아 재건’을 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연장선이다. 자타가 공인하듯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패자는 악, 승자는 선’이 병가의 상식이다. 전쟁의 성패는 당연히 군사력이다. 무기와 군대는 많을수록 좋다. 러시아에게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608억 달러의 예산과 러시아 해외 동결자산 수익금을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임박한 상황이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993년부터 미국에 수출해온 연간 10억 달러 수입원이 사라질 판이다. 전비조달을 위해 단 1달러가 아쉬운 러시아로

서는 대체 시장을 서둘러 찾아야 했다.

북한은 어떤 입장인가.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회담이 무위로 끝남으로써 평양-하노이 간 왕복열차 120시간 여정의 결과는 빈속 귀국이 되고 말았다. 김정은에게는 적지 않는 충격이었다. 최고존엄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달려갔다. 그 해 말에는 소위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 그것은 바로 옛 사회주의 맹방으로의 회귀였다. 김정은은 2019년 4월 24일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을 위해 국경 하산역에 도착하자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한마디로 향후 행보를 암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4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2023년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2차 북러정상회담은 두 나라 관계를 급진전시켰다. 김정은으로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와 서방제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를 모두 살려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었다.

최근 북러 간 초밀착은 스탈린-김일성시대를 방불케 한다. 다만 그때는 소련의 철저한 비호 하에 진행된 일방적인 대북지원이었지만, 지금은 양국 간 상호이익을 담보하는 쌍방향의 공조관계다. 우크라이나전쟁이라는 돌발변수가 러북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전쟁특수는 양국 간 협력을 최고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푸틴의 방북은 그 연장선상이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새삼스러운(?) 조약갱신이었다.

## 왜 조약을 갱신했는가?

북러 양국이 2000년 2월 체결한 ‘친선, 선린 및 협조 조약’은 10년간 유효하며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구태여 갱신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고도의 하이브리드전은 군사력 이외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선전전을 펼친다. 물론 상대국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유포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의 전쟁 피해자는 ‘진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 나아가 국가 간 외교 협력은 공신력이 있어 더할 나위 없는 하이브리드전의 호재다. 그중에서도 조약 체결은 무형의 군사 외교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전력을 과시할 수 있고 절대적인 준수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규범 중에 가장 구속력이 약한 것이 국제법이다. 특히 북한에서 그렇다. 한국에서는 조약 체결이 헌법 다음가는 법령 수준이지만, 북한은 최고 지도자 교시-노동당 규약-헌법-법령-정령 다음에 조약 등 국제법이다. 외교사례를 보아도 동맹조약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스탈린-김일성 때는 북한-소련 간 어떤 조약도 없었다. 그래도 소련은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6.25전쟁 때는 소련이 기획단계에서 휴전까지 막후에서 지휘했다. 북소 간 동맹조약을 체결했던 때는 정작 두 나라 관계가 가장 악화된 1961년 흐루시초프때였다. 오늘날 러시아-아르메니아 관계도 유사하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국경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는 러시아판 NATO로 불리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인 아르메니아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난번 북러 간 조약갱신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대외 과시용이다. 갱신된 조약내용은 2000년 2월에 체결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조약명이 ‘친선, 선린 및 협조’에서 ‘포괄적인 전략



적 동반자관계'로 바뀔으로써 사회주의식 냄새를 없애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행을 준수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내용에서는 유사시 '즉각 접촉'에서 '군사 접촉'으로 구체화했을 뿐이다. 그것도 전제 조건이 붙었다. 유엔헌장 51조와 러시아·북한의 국내법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당시 체결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다. 사실상 2000년의 '즉각 접촉' 조항만으로도 양국 간 동맹수준의 협력은 가능했다. 이를 반증한 것은 그해 7월 푸틴의 방북 때 양국 군 수뇌부들 사이에 오간 대화다. "지금 미국놈들이 로씨야와 조선을 겨냥해 전역미싸일이요, 국가미싸일이요 하면서 수백억 달러를 탕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미싸일을 가지고 있는 로조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미국 놈들을 죽탕쳐 놓을 수 있다."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직후에는 크렘린 대변인이 회담결과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은 국경을 접한 이웃국가다. 북한에서 일어난 일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제3국이 북한에 위협을 가한다면, 러시아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내용은 문서화 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동맹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당시에 논란이 없었던 것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나라는 북한만이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베트남,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약을 갱신한 의도는 러북 간 연대를 과시함으로써 미국과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견제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다. 또한 미국의 인태전략-NATO 간 연대 및 한미일 간 군사적 밀착에 쐈기를 박는 것이다. 이번 갱신조약은 2008년 한국과 체결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협정보다 더 우위임을 공식화함으로써 전쟁 전까지 견지했던 러시아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수정한 셈이다.

둘째는 대외 위장용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낮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무려 10시간을 동행했다. 민감한 합의사항은 모두 비공식회담을 통해 조율됐다. 서방언론은 조약문제에만 한눈이 팔려 비공식회담에 대해 심층 취재할 겨를이 없었다. 물론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애초 러시아와 북한이 의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두 정상간 핵심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수출문제다. 북한은 유엔 제재 때문에 2019년 말까지 해외진출 노동력을 공식적으로는 모두 철수했다. 외화가득의 원천이 차단된 셈이다. 그 후 북한 당국은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12만 명의 노동력 송출을 강력히 희망해 왔다. 1인당 연간 3만 달러를 잡아도 36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게다가 무기 공장이나 전선에 투입될 경우에는 첨단군사기술과 실전경험까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국의 월남전 파병과 동일하다. 러시아로서도 2차 동원령 없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손쉬운 선택이다. 북한 청년들만큼 양질의 노동력도 없다. 특히 보위부의 자체 감시체제로 통제가 용이하다. 다만, 서방의 촌촌한 감시망을 피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비공식회담에서 두 번째로 합의했을 경제현안은 농축 우라늄 수출이다. 미국은 1993년부터 93개 상업용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산 농

축 우라늄을 수입(연간 10억 달러, 20%)해 왔다. 러시아는 미국의 수입증단에 따른 대체시장을 서둘러 찾아야 했다. 매년 전력난에 허덕이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라늄광 개발보다는 러시아산을 싸게 수입하고 그 대신 실탄이나 미사일·드론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러한 은밀한 거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야 했다. 갱신 조약의 모호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 동북아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 주요언론의 보도대로 푸틴의 승부사 기질은 지난 6월 평양 방문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푸틴은 국내 지지를 기반으로 집권 5기 출범과 동시에 국외로 눈을 돌렸다. 중국을 필두로 북한, 베트남 등 전통우방국의 순방길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전쟁 때문에 주춤했던 외교보폭을 넓혀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이후 추진해온 유라시아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것은 2023년 3월 소위 전시외교정책으로 불리우는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의 채택이다. 이 문서의 골자는 기존의 유럽·미주 중심에서 유라시아지역(북극 포함)으로의 과감한 대외정책 전환이다. 러시아의 유라시아정책은 동진과 남진의 동시적 추진이다.

첫째, 러시아의 동진정책이다. 미국의 인태전략과 나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진정책의 중심축은 2001년 러시아와 중국 주도하에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의 지역 협력체로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CO)다.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 2023년 이란이 가입했고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국교를 복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SCO정상회의에서 벨라루스가 정식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올 7월 4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의 회원 정상들〉



몽골 대통령의 참석은 향후 회원국 가입을 위한 수순이며, 중장기적으로 북한도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제24차 아스타나 정상회의에는 처음으로 회원국 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국가연합(CIS),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대표단이 확대회의(SCO+) 형태로 참가했다. 러시아는 서쪽으로 SCO에 가입한 벨라루스를 내세워 유럽과 안보장벽을 쌓고, 동쪽과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유라시아 안보구상을 본격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를 아우르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정책과 연대하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다. 푸틴이 동북아의 북한과 동남아의 베트남을 연쇄 방문한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둘째, 러시아의 남진정책이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취임하자마자 7월 최초로 방북한 것은 장기적인 아태정책의 신호탄이었다. 그는 2012년 8월 프영편상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100억 달러 차관 제공을 대가로 캄라인만에 선박수리 기지를 확보했다. 그 후 러시아는 공군기지 신설 및 신형 항공모함 기항지로 캄라인만을 활용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러시아는 2014년 나진항 3호 부두의 49년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나진항에 드나드는 대형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보조함대를 주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나진항에 입항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로써 1984년 소련 당시의 블라디보스토크-나진-캄라인만을 잇는 군사벨트가 재구축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군사벨트를 따라 수차례 합동비행훈련을 실시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독도상공의 영

공(KADIZ)을 무단출입해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러시아는 2007년에 북극의 대륙붕에 자국 국기를 꽂고, 2017년부터는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군대를 주둔시켰다. 아울러 2014년부터 북극·북태평양에서 연례 군사훈련을 실시해왔다. 2018년에는 소련 당시에 없었던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기동훈련인 ‘동방-2018’를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병력 30만 명, 전차·장갑차 3만 6,000대, 항공기·헬기 1,000대, 함정 80척, 중국 병력 3,500명, 기계화차량 600대 및 수개의 몽골 대대급 부대가 참가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우크라이나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13개국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카터 대통령 시절에 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한 가지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을 한패로 몰아붙이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중러 간 연대를 방임하고 말았다. 비탈리 코지레프 미국 엔디컷대 교수도 최근 방한해 “미국의 배타적 정치가 러시아와 중국을 손잡게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를 역할분담하고 있다. 이미 미중 간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남태평양의 센카쿠열도와 대만문제는 중국이 주도하고, 북극·북태평양에서는 러시아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형국이다. 미국이 아시아판 NATO 구축에 전력투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세력견제의 일환일 것이다. 그 중심이 소위 IF4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다. 점점 세를 확대해가는 상하이협력기구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전략의 최전선에 서거나 미일과 중러 간 싸움을 중재하는 글로

벌 중추국이 되는 것이다. 2023년 3월말 채택된 ‘러 연방 대외정책개념’에서는 대남북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등거리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난 6월 조약 갱신을 통해 친북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국 정부의 대러 관계 복원은 단시일 내 쉽지 않을 것이다.

## 향후 전망은?

필자는 러북 정상회담 1개월 전에 “외교도 골든타임 있다. 당장 북방관리에 나서야”(한겨레, 5.22자) 제하 칼럼을 통해 북러 간 초밀착 움직임 을 경고하면서 한러 관계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간 러북 양측은 조약 갱신을 조율해 왔다. 만약 우리 정부가 대러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최소한 조약내용을 우리 측에게 불리하지 않게 톤다운 시킬 수도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갱신조약을 보면, 북한은 소련당시의 자동군사개입 수준의 동맹을 요구하고, 러시아는 이를 피하려는 흔적이 역력해 보였다. 한국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국제정치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앞으로도 반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다만 최근 한러간 갈등이 한미 동맹과 북러 간 초밀착의 제로섬 게임적 구도라는 어려움이 있다. 한미가 연대할수록 북러는 더 밀착하고, 북측은 한러 관계 회복을 결사적으로 방해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러 관계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유리한 여건은 한러 민간차원의 네트워크가 북러에 비해 월등하다

는 점이다. 한러 수교 35년간 구축된 민간네트워크는 북한이 주민감시체제의 속성상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 또한 전쟁이 끝나면 한국이 북한보다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훨씬 방대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북태평양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의 미래는 러시아와 불가분의 관계로 접어들었다.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러시아정교회의 남북한 총괄 대주교가 북한을 수시로 왕래하는 고려인이다. 동역자로서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 체결의 의미: 배경과 효력 그리고 전망

한 기 호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실장, 전 통일부 과장)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반도로 돌리는 데 성공하였다. 6월 19일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을 체결함으로써 24년 만에 양국관계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재정비, 격상시켰다. 이튿날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 4조에는 구소련과 맺은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1961.7)에 버금가는 자동 군사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즉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역안보 차원에서 이번 신(新) 북러 조약의 체결은 기존의 친선·협력 관계(친선, 선린 및 협력에 관한 조약)(2002.2)가 불가분의 관계<sup>1</sup>로 전환

되었음을 선언한 것으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역학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번 북러 조약의 내막과 의미, 향후 한반도에 미칠 전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의 배경이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높은 수준의 결속이 가능했던 것에는 양국 간의 전략적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군사적, 경제적 대북제재의 수정을 주장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북한과의 조약 체결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국가들의 제재 효능감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거나 동참을 요구받는 국가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특히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브릭스(BRICs)를 비롯한 중견국들의 행보는 곧 신냉전 질서 하의 가치외교의 성패를 가르는 캐스팅보트(Casting Vote)다. 최근 러시아와 원자력, 조선 분야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인도의 모디 총리는 7월 10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서 푸틴 대통령을 ‘친구’라 칭하며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좌절시킨 바 있다. 견고했던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양국의 믿음은 이번 조약 체결의 필요조건이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중견국 또는 약소국가들은 저만의 방식으로 위협국가 또는 강대국을 대상으로 손실회피를 위한 균형(Balancing) 내지는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신냉전 질서의 가속화는 북한이 중러 사이에서 대러시아 편승 전략을 조기에 채택하게 한 배경이다. 북한은 이번 조약의 과시효과로 한층 높아진 체급으로 미국을 상대하게 되리란 기대를 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조약은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해야 하는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러-우 전황에서의 우세를 굳히고자 하는 푸틴은 평양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연 200만발 가량의 포탄 생산국과의 조약을 바라보는 미중 관계자들의 표정을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

**둘째, 24년 전 기존 조약에 비견되는 양국관계의 위상 변화이다.** 2000년 2월 당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체결한 조약의 성격은 군사적 자동개입을 규정한 1961년의 ‘북러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상호방위조약)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조약 체결 5년 8개월 전인 1994년 6월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1961년 체결한 북한과의 상호방위조약의 폐기를 약속했고, 실제 1996년 9월 10일 조약의 효력이 종료된 터였다. 조약 체결 5개월 후

인 2000년 7월,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은 평양 북러 공동선언을 통해 13개 항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상호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침략 또는 안전 위험 상황 발생 시 바로 상호 접촉’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이번 조약과의 차이가 뚜렷하다. 따라서 2000년에 체결된 북러간 조약은 한소 수교(1990.9.30)와 구소련 붕괴 이후 소원해졌던 양국의 신뢰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의의는 있으나, 상호 정치군사적인 Entrapment(entrainment)의 부담이 있는 군사 분야보다는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당시 배경<sup>2</sup>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한 푸틴이 이번 조약에 담길 전문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것이라 점쳤던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제 시선은 달라진 위상의 신 조약이 미칠 파급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셋째, 이번 조약이 미칠 실제적 효력과 국가 간 역학관계이다.** 돌이켜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2.24) 직후부터 수년간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sup>3</sup>해온 북한은 지난해 9월金正은의 러시아 방문을 정점으로 하여, 푸틴의 이번 답방을 통해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두둑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약속받았다. 양국 간의 경제, 관광협력의 증진은 팬데믹 시기부터 누적된 북한 주민들

2 동맹이론가들은 상호의존도가 명확한 국력간의 비대칭성에 기반하는 동맹의 경우, 동맹의 상대가 체결한 조약을 파기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포기)과 자국의 이익에 상충되더라도 동맹국이 관련된 전쟁 등의 갈등 현장에 참여해야 하는 고충(연루) 사이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딜레마를 지적한 바 있다.

3 북한 외무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만인 2022년 2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리지성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명의로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공간을 허물지 말아야 한다’ 제하의 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러시아의 합법적인 안전상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 패권과 군사적 우위만을 추구하면서 일방적인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그 근원이 있다”며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첫 논평을 발표하였다.

1 러시아의 경우,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를 1단계 선린 우호 관계, 2단계 상호 신뢰하는 협력관계, 3단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4단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5단계 전략적 동맹 순으로 등급화하고 있다. 이번 조약은 2000년 체결한 1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 수직 격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 경제적 피로감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다. 이미 북러 간 단체관광은 올해 2월부터 재개되었고 지난 6월 6일부터 여객열차 운행도 재개되었다. 러시아도 북한의 군사적 지원뿐 아니라 외화벌이 노동력 공급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황으로 인한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이력 수급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전황과 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떠안고 있는 경제제재의 형편상 가시적이고 파격적인 수준의 경제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이번 조약의 하이라이트인 4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효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신뢰의 영역이다. 특히 북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실제 군사작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북한의 대러 인식과 러시아의 대북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푸틴의 이번 방북 간 주목받았던 것은 해방탑에서의 현화였다. 푸틴은 왜 해방탑에 갔는가? 이는 소련의 북한지역 공산주의 체제 이식의 정통성과 북한이 칭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소련군의 군사적 기여를 공식화한 이벤트였다.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의 의지를 다지면서도 러-우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대러 보은 차원에서 정당화하려는 양가적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1960년대 이후 각종 기술에서 소련군의 역할을 축소, 삭제하고 빈자리를 항일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채워왔던 북한의 입장에서 해방탑 현화를 반길 만큼 소련군에 대한 실제적 향수는 크지 않다.<sup>4</sup> 또한 외국군 참전 및 주둔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는 별개로 직접적인 참전의 전제가 되는 ‘무력침공을 받

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를 명시한 조약 4조는 ‘전쟁상태’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북러 조약 체결 직전<sup>5</sup>까지 선전해왔다. 다만 변화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 연설에서 “조국 러시아에 대한 실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 3월 러시아 대선 직후 크렘린궁 대변인도 “우리는 이미 전시 상태에 있다”며 특별군사작전의 성격의 변화를 암시하였기 때문이다.<sup>6</sup> 결국 양국이 러-우 사태를 조약상의 전쟁으로 인정할 경우, 또한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로켓시스템 하이마스(HIMARS)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sup>7</sup>이 사실일 경우,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알려진 약 160만 발의 포탄<sup>8</sup>은 양국 간 조약에 준하는 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상태’의 해석이 모호한 위협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약 전문 3조<sup>9</sup>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전쟁상태’라 할지라도 러시아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에 군사적 연루 부담을 즉각 이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과 4년 전, 러시아판 나토(NATO) 즉, 구소련권 군사안보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IS 6개국)의 가입국 아르메니아가 비회원국인 아제르바이잔과 영토 전쟁을 벌일 당시 군사 개입을

망설였던 푸틴의 뒤늦은 평화 중재로 인해 아르메니아의 항복을 초래한 전례가 있다. 당시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 벨트로 묶인 아제르바이잔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참전하기에 외교적 부담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모호한 태도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대러 안보 인식의 근본을 흔드는 도화선이 되었다. 최근 아르메니아는 CSTO 멤버십의 탈퇴 선언 등 신중론 속에서 안보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1968년 소련의 크렘린궁은 북한의 푸에블로함 납치 사건 당시, 북한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사건이 전쟁으로 확산될 시, 전쟁에 연루되거나 북한을 보호할 의무가 없음을 고지하기로 결정한 바도 있다.<sup>10</sup> 악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책임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전쟁 개입에 대한 판단을 자국의 명분과 실리 면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잘 아는 북한 당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호 군사조항의 발동보다는 한미 동맹에 대항하는 ‘상호안보의 불가분 원칙과 역내 힘의 균형’(6.26러, 자하로하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목적 삼는 조약의 상징성과 대외적 파급력이다. 동맹이론가들의 시각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상충적 혹은 소극적 관계 설정이 아닌 적극적 관계 설정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포기(abandonment)가 아닌 조약을 통해 연루되는 길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다. 여기에 주효했던 것은 공통의 이해관계이다. 조약 전문 6조에 명시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 수립’은 2007년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질서 변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의 ‘해방탑’을 찾아 참배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해방탑은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소련군이 일제로부터 북한 지역을 해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탑이다.〉

경을 위해 모색했던 길인데 여기에 ‘조선’의 자리가 있음을 미 유력 대선주자들과 자유주의 진영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까지 알리는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였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도 동북아 역내에서의 지정학적 건재함을 과시했으니 유사한 효과를 누린 셈이다.

**넷째, 북중러 3각 협력에 미칠 영향과 외교적 실리이다.** 이번 조약을 두고 일부 미국의 싱크탱크 연구소나 북중러 협력 가담에 다소 미온적인 중국 학자층에서는 국제적 ‘외톨이 국가’ 간의 조약이라며, 유효기간은 러시아의 탄약 수요가 떨어지는 러-우 전쟁 종료 시까지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의로 끊어낼 수 없는 분단 체제적 특성과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복합성을 매사 따져 물어야 하는 우리는 희망사항과 현실정세를 혼돈할 여유가 없다. ‘가치외교’와 ‘실리외교’ 사이에서, 다가올 11월 미 대선 이후, 진영 간 블록화 현상의 항방과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까지 대비해야 한다. 주목할 것은 이번 조약을 바라보는 중국의 반응과 속내이다. 이를 예측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 내에서 중소를 상

4 자세한 내용은 이완범, 「북한 점령 소련군의 성격-1945.8.9~1948.12.26-」(『국사관논총』 2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을 참고.

5 <http://kremlin.ru> 2024.6.18

6 다만 크렘린궁 대변인은 공식적인 용어 변경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한경경제, 2023.3.22

7 한겨레, 2024.6.3

8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4/06/22/russia-north-korea-military-deal-ukraine/>

9 북러조약 3조는 어느 일방에게 조성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 합의는 상호협상 통로의 가동시켜 처리함을 명시하고 있다.

10 조선일보, 2024.6.21

대로 했던 북한의 약소국 외교의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0년 흐루시초프 서기장의 평양 방문 취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를 찾아 소련과의 조약(1961.7.6)을 성사시킨 김일성은 닷새 후 소련과의 조율 없이 중국과 상호방위조약(1961.7.11)을 성사시키며 소련의 군사원조 철회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기실 중러간 국경분쟁은 골이 깊다. 1950년대부터 중국은 불평등 조약을 근거로 영토 반환을 소련에 요구해왔으며 1969년 ‘산둥꼬마’(小山东)로 알려진 헤이룽강 성 우수리강 유역 국경 분쟁 당시 미하일 코시킨 소련 수상은 중국에 대한 핵공격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화목하기 힘들었던 사회주의 세계의 1, 2인자 간의 균열적 분쟁사는 북한에게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하게 하는 기회이자 동북아 생존전략의 동인이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중소와 체결한 조약을 지켜내었는데, 북한의 대중소 외교사에서 의미있는 성과였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중국과 소련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관리는 주요 현안이었다. 특히 1958년 저우언라이(周恩來)의 방북 이후 3년 만에 체결된 양자 조약은 서방세계에 대한 견제나 직접적인 참전 의지에 대한 약속의 성격이 아니었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 당시 북한은 운신의 제약 속에서 중소의 영향력에 따라 시시각각 외교·경제 전략을 달리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생존법인 ‘국예외교’를 구사했다. 당시 북한은 줄에서 떨어지면 낭패를 보는 국예사였다. 현재는 대북제재를 온몸으로 견뎌내는 주민들의 희생 위에 러-우 전쟁과 미중전략경쟁 하에서 끊임없이 파생되는 중러 사

이의 외교적 수요를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잠시 균형을 잃어도 죽지 않는다는 셈법에 기인한다.

21세기의 권위주의 진영의 리더, 중국은 60년 전과는 사뭇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상은 권위주의가 아닌 서방 자유주의 진영과의 신뢰 관계로부터 온 선물이다. 러-우 전쟁이나 북핵문제에 대한 역할론에도 비교적 등거리 입장을 취해온 중국은 북러와 같은 선 굵은 진영외교가 부담스럽다. 이미 2014년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은 “군사동맹 방식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중 간 군사동맹 관계를 부정한 바 있다.<sup>11</sup> 북러 조약 체결 직전 확인된 북중 정상 간 ‘발자국 동반’의 최근 철거도 중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sup>12</sup> 북러 조약 당일 발표된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도 매우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북러는 이번 조약을 계기로 남북러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개 성격으로 '두만강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sup>13</sup> 북한의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중국을 통해 이뤄졌다는 대목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불편한 부분이다. 이번 조약이 트리거(Trigger)가 되어 한미일 역내 방위 협력의 수준이 아시아판 나토(NATO)로까지 격상되는 상황은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국이 북러가 손짓하

는 진영간 블록화 열차에 바로 올라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잃을 것 없는’ 북러 간의 마이웨이 행보가 그리 눈엣가시인 것만도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이 교착에 빠지고 서방진영의 제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6월 1일자로 사실상 자금줄인 중국과 전략적 요충지인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화물 중계항 사용에 합의하였는데<sup>14</sup> 중국은 이로써 동북지역 물류 효율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러-우 전쟁의 반대급부로 에너지협력의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도 높아졌다. 미중과의 전략경쟁 관계는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체면을, 미국은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톤 다운되어 약간의 여유 공간이 생겼다.<sup>15</sup> 현재의 북러 간 군사·경제적 결속과 유류가 되기를 포기한 듯 한 러시아의 폭주가 달갑지는 않지만, 시진핑 체제의 중국에게 자유주의진영과 각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주면서 전략적 실리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을 위한 우리의 전략이다.** 사실상 북러 간 군사동맹 복원으로 한반도에는 전례 없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북러 조약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푸틴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한미는 7월 11일 나토



〈북한과 중국·러시아 국경이 접해있는 중국 지린성 훈춘에 세 나라 국기 모양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고 북한은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규탄하며<sup>16</sup>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러 조약 체결은 한미뿐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북러 조약 당일 뉴질랜드와 정보보호협정 체결, 7월 8일, 필리핀과 상대국 파병 등을 포함한 상호접근협정(RAA)에 서명에 이어 7월 12일, 독일을 방문, 솔츠 독일 총리를 만나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언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전략적 우군을 확보하고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sup>17</sup> 남북관계의 적대지수 또한 상승 중이다. 한반도 상공에 전단과 오물풍선의 출현이 일상이 된 가운데 비무장지대에서는 북한 군인들의 군사분계선의 잦은 침범과 지뢰 매설, 대전차벽 설치, 경의선, 동해선 지역의 가로등과 철로

11 서울경제, 2014.6.19.

12 해당 동판은 2018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시 다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걸으며 순치관계의 복원을 상징했다. 중앙일보, 2024.6.11.

13 조선중앙통신, 2024.6.20.

14 KIEP, 중러 블라디보스토크내륙중계항 이용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2023.7.7.) 참조.

15 2024년 4월 2일 미중 양 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 양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책임있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인민일보, 2024.4.3.


16 조선중앙통신, 2024.7.13.

17 매일경제, 2024.7.14.



## 최근 동북아 정세에 관한 기고문

최재덕 (원광대 교수·한중정치외교연구소 소장)

가 해체되는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 국제정치는 예측과 대비, 작용과 반작용의 영역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민족개념과 통일정책을 폐지,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 ‘한국’으로 규정한 북한과의 긴장국면을 해소할 출구전략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sup>18</sup>로 악화되고 있는 미국 일극의 질서의 이완과 11월 대선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를 대비하되, 북중러 3각 협력 간 복합적인 이해관계의 틈새를 활용하는 -국익에 기반한 초당적이고 실리적인-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남겨진 긴요한 과제이다.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질서가 다시 분쟁과 갈등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억제되었던 갈등은 전쟁으로 표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그것이다. 유라시아대륙 동쪽에서 군사적 충돌이 가장 우려되는 곳은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최전방 대만 해협이다.

대만 해협에서 지난 30년간 직접적인 충돌 없었던 것은 미중이 갈등보다 협력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에 정치, 경제, 기술,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식량, 자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워싱턴의 미중 관련 회의에서 세계 대전의 논의하고 있다’는 풍문이 떠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쟁은 미중 모두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초기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대만통일’을 추구하며 해군력을 강화해왔다. 성능은 뒤지더라도 중국의 군함 수는 이미 미국의 군함 수를 넘어섰다. 중국은 자연스러운 대만 통일이 어렵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고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완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 문제 연구소들은 대만 해협에서 미중 충돌 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패권국이 된 이후 다른 대륙에서 미국에 도전할만한 지역 패권국의 출현을 저지해 왔다. 미국의 목표는 명확하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오커스(AUKUS)<sup>1</sup>에 일본과 한국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필리핀과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부터 대량의 첨단무기를 대만에 수출하고 대만군은 자위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건은 미국의 태도이다. 작년부터 대만의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미국이 반도체 독립을 이루게 되면 미중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미국은

18 미국의 일방주의, 보호주의, 고립주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의미한다.

1 오커스(AUKUS)는 호주(AU)와 영국(UK), 미국(US)의 영문 약칭을 혼합한 용어로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파트너십, 즉 군사동맹을 뜻한다.

세일가스 생산 이후 에너지 독립국이 되었고 중동 정책이 크게 변했다. 2027년경 미국이 반도체 독립을 이루게 되면 대만을 전쟁 없이 지켜야 될 의미가 작아질 수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는 한반도가 매우 위험한 전략 환경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경우, 북중러 대 한미일이 대치하고 동맹국들이 참전하며 최악의 경우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은 주한·주일 미군이 대만에 집중한 틈을 기회로 여길 수 있다. 미중 경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대만 해협과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종횡으로 연결하는 십자형 다자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무게 중심을 두되 남북, 한중, 한러 등 양자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미·일과의 협력이 안보를 위한 것이듯 북·중·러와의 관계개선 역시 안보를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미·중·일·러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한국이 안보를 위해 좌표를 지나치게 편향되게 움직이면 대척점에 있는 상대국이 한반도에 부정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안보 위험이 발생한다. 한국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호적인 이웃 국가가 되고 자국의 이익과 발전에 필요한 국가가 될 때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 한중관계 현안과 한국 외교의 현주소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중의 협력 범위가 축소하고 한국의 선택지 역시 축소된다. 따라서 미

중 경쟁의 프레임 내에서 한중관계 발전의 제약 요인도 더 커졌다. 동북아 안보 구도로 인한 지정학적 제약이 커지면서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온 한국은 호혜적인 한미·한중관계의 양립이 어려워졌다.

지난 3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한 중국의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미중 경쟁의 핵심이 기술경쟁인 만큼 중국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내수 위주의 자립형 공급망 형성’과 이를 위한 기술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11월 5중 전회 폐막 후 발표한 자료에서 ‘제조강국-품질강국-인터넷강국-디지털강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여전히 한중 수출입에서 중간재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 자립 가속화와 핵심 산업의 부품 및 소재 국산화율 상승으로 중간재 수출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세계화 시대를 배경으로 북한 문제, 한미동맹, 대만해협의 긴장 및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양국의 핵심 이익이 직결된 분야에서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이념 및 체제, 외교·안보 분야의 대립을 억제하면서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면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대만 문제에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함에 따라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지도 좁아졌다.

중국은 한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한국도 역내 안보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의 협력에만 경도되어 냉전적 구도가 굳어지면 한국은 자칫 미일 협력에서도 지렛대를 상실할 우려

가 있다. 미중 경쟁의 프레임 내에서 신냉전 기류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한중관계 회복의 기회를 만들고 경제적, 안보적 실익을 얻어야 한다. 미중 대결이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한미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의 목적은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강대국의 힘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중간국이 급격히 한 편으로 균형점을 이동하게 되면 다른 한편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안보를 위한 선택이 오히려 극단적인 안보 불안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되었다. 이는 현재 강력한 북중러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북·중·러는 핵과 ICBM을 보유한 이웃 국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의 안보전략은 이러한 지정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의 안보전략이 한미일 편향 일변도로 이행한다면 북중러와 관계가 악화하여 오히려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대만해협의 상황이 급변한다면 북중러가 신속히 군사적으로 연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전략은 한반도에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 어렵지만 미·중·일·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러와 비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북한을 견제하기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도 중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한중관계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이념과 체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차이를 인정하고 양국 간 갈등을 조정 관리하여 대등한 한중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우호적 전략 환경에서 양국이 지난 30년간 추구했던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양국의 교역량 증가나 외교적 수사로는 미래의 발전적 한중관계를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외교적 차원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의 대북 정책이나 안보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중국의 강대국화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지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국은 중국과 동북아 평화, 경제적 번영의 수혜를 함께 나누는 상호보완적 이익공동체로서 양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 미중 전략 경쟁, 중국의 선택과 한반도의 미래

미국과 중국은 한국 전쟁에서 적국이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적대국이었으나 미국의 구소련 견제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1979년 수교한 이후 40여 년간 갈등을 관리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이어왔다. 거듭된 중국의 고도성장은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양국의 갈등과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회복 및 동맹과 다자협력 강화를 주창했다. 이는 미국 국력의 한계를 인



지하고 동맹 및 우방과 협력하여 중국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참여하기 주저했던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경제·에너지·군사안보를 강화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의 도전에 미국과 공동 전선을 펴기 시작했다. 미국은 쿼드(QUAD), 오키우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 동맹(CHIP4), 블루퍼시픽파트너스(BPP) 등 다자주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가치, 기술,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인 동맹 강화에 나섰다.

대서양 동맹 복원 및 민주주의 국가의 결집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유럽의 경계심을 고조시켰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계화 기조에서 세계는 이념과 체제에서 오는 갈등을 억제하면서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단일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며 경제발전을 추구해왔고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최대 수혜를 누리면서 고속성장했다. 2018년 미중무역분쟁으로 본격화된 미중 경쟁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진영대결로 확장되었다. 그동안 긴밀하게 유지되어왔던 중국과 유럽의 경제협력이 미중경쟁에서 유럽이 중립적 위치에 있게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유럽은 미국 쪽으로 균형점을 옮겼다.

대만은 미국이 중국의 해상봉쇄를 위해 사수해야 할 지정학적 교두보이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경쟁의 최전방이다. 중국에 대만 통일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참전을 분명히 했고 미중 갈등은 대만의 지정학적 리

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대만에 최소한의 방어무기만 판매하던 미국이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최신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대만군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 방위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발족한 오키우스에 일본이 가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필리핀 합동군사훈련(발리카탄 훈련)이 확대되었다.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대만 해역을 포위하고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의 중국 원칙’ 침해에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중국은 군용기의 빈번한 중간선 침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순찰을 통해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여 무력시위를 상시화하고 중간선 무력화(無力化)를 시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확장된 나토는 12년 만에 ‘신(新) 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을 채택하면서 중국을 ‘나토의 이익 안보 가치 및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로 규정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안보가 나토에 매우 중요하며,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을 넘어선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내에서 나토를 매개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서양 동맹을 연계하여 나토의 전략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보복에 대응할 중국판 ‘슈퍼 301조’를 마련했다. 2024년 4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4년 12월부

터 가동되는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주목할 것은 제17조에서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를 체결한 국가가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칠레와 브라질까지 중국산 철강 및 과잉생산 품목에 추가 관세를 검토하거나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새 관세법 17조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세계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미중 간 제2의 무역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미중 전략 경쟁은 전방위적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 경로를 방해한다고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강대국화를 추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미중 경쟁의 장기화에 대응하고 있다.

지금도 역내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위상에 맞는 국제질서에 기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미중 간 힘의 대결이 심화할수록 한국 외교의 외연 확장 못지않게 남북·한중·한러 등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양자 관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중러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한중관계를 우호적으로, 한러 관계를 위기관리로 서로의 레드라인을 지켜 양국관계를 유지하며 국제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다가올 평화의 시기에 더 발전적 관계를 형성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진영 경쟁으로 확대된 미중 경쟁과 중러 연대

및 한반도의 냉전적 안보 구도의 강화 및 북한의 도발 상시화라는 배경 하에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인식하여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가치 외교를 강화하고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안보 최우선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가 미중의 지정학적 격전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질서의 대전환에 대비하는 것이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북민 수기 : 손이슬 자매

## 제 5화

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원에서 나온 직후부터 이루어졌다. 먼저 태국 난민수용소에서 만났던 엄마의 교화소 동기인 아주머니에게 엄마를 꺼내기 위해 통로를 놔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아줌마는 못 이기는 척 한국에 있는 딸을 통해서 모종의 선을 놔주었다. 그런데 그 딸이 연결해준 브로커는 거의 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비용을 요구했다. 너무나 큰돈이었지만 쇠약해지셨다는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에 와서 받은 정착비용을 탈탈 털고 거기에 빚까지 져가며 브로커에게 돈을 냈다.

그 브로커는 다시 북쪽에 있는 다른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북쪽 브로커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꼭 남쪽 브로커를 거쳐야 했는데, 예정된 연락 시기에 자신이 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신 연락을 연결해 줄 탈북자를 알려주기도 했다. 하루는 북쪽 브로커로부터의 연락 수신을 위해 그 연락을 연결해주는 한 탈북민 언니 집

을 방문했다. 연결된 전화를 통해 북한쪽 브로커는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병보석으로 엄마를 빼내야 하는데 사람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전에 요구받은 돈도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돈을 더 구해야 할지 막막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어떻게 돈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일만 해서는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다. 마지막 수단은 살고 있는 집을 내놓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한국 초기 정착 지원제도로 정부에서 제공한, 아이와 둘이 살 수 있는 17평짜리 임대주택이었다. 그 집의 보증금을 빼서 브로커 비용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것으로도 돈이 모자라서 은행 대출도 더 받아야 했다. 내 소식을 들은 교회 전도사님이 나를 말리셨지만 내 귀에는 충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위독하신 어머니를 하루라도 빨리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꽂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단 먼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갔다. 대출 보증금으로 현금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는데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 그냥 돌아왔다. 다시 10만원을 준비해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북한쪽 브로커와 전화를 연결해주었던 언니가 내가 집을 내놓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정신이 나갔냐며 질책했다. 그 언니는 가족들 살리겠다고 여러 탈북민들이 자기 집을 팔고 무일푼이 되었고, 그렇게 비슷한 신세들끼리 무리지어 작은 월세 집에 사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언니가 보기에는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브로커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정신을 차리라고 했다. 사실 그 언니는 이전에는 나와 일면식도 없었다. 오히려 브로커와는 동업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화 연결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충고를 해주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니를 사용하셔서 나를 일깨우신 것 같다. 그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일단은 집을 처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브로커가 진짜 사기꾼이라면 더 이상 그에게 의지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1분 1초가 급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새로운 브로커를 찾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던 그때였다. 교회에 같이 다니던 한 언니가 나에게 탈북민 남성들과의 2대2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함께 미팅에 나가자고 제안했다. 솔직히 무슨 남자를 만나고 할 정신은 없었지만 나는 오직 북쪽으로의 연결선을 찾아야겠다는 이유로 그 미팅에 참여하기로 했다. 아이를 교회 부장님께 맡기고 나간 미팅에서 미팅을 주선했던 언니는



상대편 남자들의 실물을 보고 실망해서 입을 꼭 다물었다. 하지만 나는 혹시나 그들이 날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자기 지인이 나와 동향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를 통해서 동향 출신 언니와 연락이 닿게 되었다. 나와 같은 지역에 살던 선배였는데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언니는 나를 알고 있었다. 당시 우리 지역 학교들은 반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악기에 소질이 있었던 나는 종종 지역 학교들에서 풍금을 연주하곤 했다. 그 언니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내가 와서 풍금 반주를 했었다고, 그 때 어린 학생이 와서 당차게 반주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었다고 했다. 그 언니는 자신의 친오빠와 친부모가 모두 아직 북한에 있다고 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교회 화소에 계신 어머니와 직접 연락을 요청할 수는 없으니 먼저 오빠를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비용을 지불 할 테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오빠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언니는 비용 걱정 하지 말라면서 흔쾌히 오빠를 찾아주겠다고 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을까... 초조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언니를 통해 오빠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빠와의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과 함께 내 귀에 들려온 이야기는 나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태국에서 만난 아줌마가 교화소를 나올 때부터 우리 엄마는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 아줌마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터였지만 내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고자 했던 것이다. 아줌마와 딸, 그리고 브로커까지 모두 한패였고, 정신이 나가 있던 나는 이 당연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작정 큰 돈을 갚다 바친 것이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데 왜 그랬냐며 따졌지만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죽은 사람 한 번 더 죽인 것이라고, 어떻게 이미 돌아가신 분을 살아있다고 사기를 치냐고 울분을 토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소식에 이어 북에 있는 오빠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빠와는 정말 오랜만의 연락이었다. 북한의 그 기나긴 군복무의 특성상 내가 북에 있을 때에도 오빠는 전방에서 군 복무 중이었고, 탈북 당시에 오빠에게는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화로 듣게 된 오빠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대화의 내용은 침울하기만 했다. 오빠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어쩌다 이렇게 되셨는지에 대해 “그냥 그렇게 됐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오빠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본인도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먹고 살기 힘들어 지면서 밀수를 하시다가 상대방과 다툰 것이 어쩌다보니 큰 문제가 되었

고, 거기에 딸이 탈북한 것이 가중 처벌로 작용하여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고 했다. 오빠의 처지도 기구했다. 가족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오빠는 강제 제대가 되었고, 고향에 돌아와보니 집은 무상 몰수가 된 상황이었다. 오빠는 원래 집이 아닌 변두리 지역으로 작은 집과 함께 재배치를 받았지만, 먹고 살 돈이 없어 그 집도 팔아치우고 건설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그 기업소 기숙사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빠는 어머니를 교화소에서 꺼내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나중어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사실만 통보받았다고 했다.

전화상에서 느껴지는 그 무기력함과 답답함에 나는 오히려 엄마를 돌아가시게 둔 오빠가 원망스럽고 화가 났다. 평소 어머니의 성품을 생각하면 남에게 해코지를 당하면 당하셨지 먼저 악한 일을 하실 분은 아닌데, 왜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돕고 석방을 위해 애쓰지 않았는지... 사실 따지고 보면 오빠가 더 억울할 것이다. 군대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인생여정도 갑자기 험난해져버렸으니 안타까우면서도 내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한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처지를 방관한 무기력한 오빠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았다. 하루는 이모가 우리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이모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내가 자면서 하염없이 울어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그 당시 내가 꿈에서 어머니가 짙 두루마기에 감겨있고 쥐

들이 밟고 잡아먹는 모습이 보였다. 나중에 들어보니 교화소에서 사람이 죽으면 두루마기에 감아서 불망산이라는 곳에 던져버린다고 한다. 중국에 있었을 때부터 부모님을 찾아 꺼내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기대하고 기다렸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실감을 느꼈다.

중국의 남편과도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크게 일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여러 번 부모님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렇게 부탁했고 내가 가족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애쓰는지도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곤고함에 처할 때 방치하였다. 어머니의 행방을 알기 이전에는 비록 팔려가서 하게 된 원치 않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딸아이의 아버지이니 관계를 이어가볼 생각도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일찍 어머니의 행방을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회한이 크게 일었고, 그 상실감 속에서 원망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남편과 관계를 지속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탈북만 하면 우리 가족 모두 더 밝고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모두 큰 아픔을 겪었다. 중국의 시골 외지로 팔려갔던 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사연도 알 수 없는 아버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시다가 고초를 겪고 차가운 교화소에서 숨을 거두신 어머니, 의도치 않게 인생이 꼬여버린 오빠... 이것이 우리



가족이 바라던 모습은 분명 아니었다. 한국행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북에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남한에서 이제 막 시작된 내 두 번째 삶은 그 시작부터 크게 흔들렸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다행히 주님은 이렇게 방황하는 나를 만나주셨고, 함께해주셨고, 또 인도해주셨다. 만약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말 그대로 아무런 낙도, 의미도, 소망도 없었을 것이다. 삶의 희망이 사라진 나에게 주님은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셨다. (계속) 🐟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북한성결교회사

저 자:  
이한복

출판사:  
대한기독교서회

발행일:  
2024년 5월 20일

가 격:  
20,000원

한국교회의 몇몇 교단과 선교단체에서는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자료들 중 가장 환영을 받는 자료 중 하나는 북한의 최근 상황과 정세를 분석한 기도자료와 과거 북한에 있던 교회의 역사를 정리한 자료이다. 북한관련 뉴스의 홍수 속에서 신앙의 시각으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작업과 사회·물리적으로 단절된 북한에 과거에 있었던 교회의 자료를 찾는 일은 모두 실력과 고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충실한 자료들은 북한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동기 부여가 된다.

북한에 있던 교회들에 대한 자료는 기도를 위해서뿐 아니라 북한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북한의 그루터기 교회와 동역하는 사역자는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공간을 거치며 생존한 성도들을 도우며 소통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울 자료가 있다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

다. 1990년대 장로교 교단 산하 북한교회 재건위원회와 한기총 산하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책을 출판하였으며 장로교의 이북노회를 중심으로 노회사 자료들이 출판되기 시작했다. 성결교는 2019년에 들어서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가 출간되어 북한에 있던 성결교의 자료들을 정리한 바 있다.

한국의 초기 성결교회는 교단이라기 보다는 선교회의 성격이 강했는데, 성결교는 종로 염곡에 동양선교회의 복음전도관이 문을 연 1907년 5월 30일을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동양선교회는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감리교의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로 일본에서 활동하던 카우만(C. E. Cowman) 등의 선교사가 일본인 나카타 주지(中田重治)와 함께 1901년 일본 동경에서 세운 중앙복음전도관을 모체로 한다. 동양선교회가 조선에 들어오던 시기 조선에서는 이미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연합공의회가 조직되어 선교지 분할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동양선교회는 ‘선교회’로서 기존 교단들간의 지역 분할을 반대하는 한편 기존 주류 교단이 진출하지 않은 산간오지로 진출하여 북한의 산간지방에도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다. 북한 지역의 성결교회는 1909년 진남포복음전도관과 1909년 개성복음전도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는 성결교 초기 지도자들의 대다수가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인 이유였다. 실제로 조선성결교 최초의 지도자 3인 정빈(황해도 해주), 김상준(평안남도 용강), 이장하(평안북도 의주)는 모두 북한지역 출신 이었고 성결교 최고의 부흥사 이성봉 목사도 만주와 신의주에서 사역을 한 경험이 있다.

『북한성결교회사』는 북한지역에 있던 모든 교

회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 교회별로 정리한다. 성결교단의 교회 목록을 참고 할 때 주로 활용되는 자료는 1944년 4월 5일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성결교 해산에 대한 자료와 이명직 목사가 1929년 집필한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약사』가 있다. 성결교 신학은 4중복음을 기초로 하여 재림사상이 강조되는데, 2차대전 말기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은 종말과 재림사상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던 시기 이러한 성결교의 신학이 일제의 미움을 사게 되어 1943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 되었다. 이 때 해산된 58개 교회의 목록이 1944년 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것이다. 이명직 목사는 한국 성결교 신학의 기동으로 일컬어지며 “활천”의 주필과 경성성서학원-서울신학대학의 학장을 역임했다. 그는 1929년 집필한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약사』에서 당시 조선에 있던 75개 성결교회의 기본 정보와 교역자를 모두 정리하였다. 성결교 교단차원에서 2019년에 출간한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역시 위의 두 기반으로 추가 자료를 발굴하여 해방 전 북한에 있었던 82개 교회를 소개한다. 이 책 『북한성결교회사』는 앞에서 언급한 두 원자료 뿐 아니라 성결교의 교단지 “활천”을 비롯하여 연회록과 총회록을 망라하여 북한지역에 존재했던 91개 성결교회의 자료를 수집, 정리한데 의미가 있다.

이명직의 약사가 1929년 이전의 75개 성결교회를 정리하였고, 1944년 조선총독부의 관보가 1943년 박해를 견디고 남아있다 폐쇄된 58개 교회를 정리했다면, 이 책은 두 자료가 다루지 못한 교회들을 발굴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가 위치한 지역, 교회의 설립 내력과 설립자, 교회가 있던 주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교

회 설립 이후 폐쇄시까지 있었던 교회의 구체적인 소식들을 정리한다. 활천과 회의록, 명단 등의 원본 사진을 제공하여 더욱 실감나게 당시 상황을 전달하며 각 교회 소개의 말미에는 역대 교역자의 명단을 시기별로 정리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교단 차원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각 교단의 지역 교회가 발행하는 주보는 개교회사 연구의 핵심자료로 매주 발행되며 교회의 온갖 정보를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교회 차원에서 관리되므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주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보모음이 소실된 사례가 매우 많다. 그러나 성결교가 교단 차원에서 발행한 “활천”은 교단지로 신학교, 교단, 개교회 차원에서 관리되어 교단의 역사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활천은 교단의 소식 뿐만 아니라 개교회의 주요 소식을 소상히 전하였는데 교단지에서 개교회들의 사역을 정리하는 일은 장로교, 감리교와 같은 대형교단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각 교단과 연합기관을 통해 북한교회 개교회사 자료들이 생산되어 오고 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뜻있는 원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것이 2000년대 들어 장로교의 이북노회들의 노회사 편찬작업을 통해 노회, 지역별로 정리되고 있을 뿐, 대다수 교단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북한교회사 연구의 환경 속에, 성결교와 이한복 목사의 노력은 큰 격려와 도전을 주고 있다. 성결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북한 지역 교회 역사에 대해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해 본다. ☺



## 군 “북, DMZ 작업 중 10여회 지뢰폭발 사고… 사상자 다수”

휴대폰만한 북한 ‘나뭇잎 지뢰’



〈북한이 매설 중인 나뭇잎지뢰〉

북한군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등의 작업을 하다가 10여차례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국방부가 7월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북한군은 폭염과 장마에도 전선 지역에서 지뢰매설,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수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다”며 “작업 중 10여차례의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임시형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휴일이나 병력 교대 없이 하루 평균 12~13시간씩 작업을 계속하고, 철야 작업과 함께 김일성 사망일(7월 8일)에도 작업을 실시한 곳이 있었다”며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동원된 것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북한군의 DMZ 내 작업의 진척도에 대해서는 “현재 DMZ 약 250km 기준 불모지 작업은 약 10% 진도율을 보이며, 방벽 설치는 약 1% 수준이고, 지뢰매설은 수만 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군이 DMZ 출입문 역할을 하는 북측 통문 4곳에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건설 중이며, 방벽의 높이는 4~5m, 폭은 짧게는 수십m, 길게는 수백m에 달한다고 6월 18일 밝힌 바 있다. 약 한 달 새 방벽의 폭이 총 2.5km에 달하게 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유실돼 남측으로 유입되거나 북측이 집중 호우를 틈타 의도적으로 지뢰를 남측으로 살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매설 중인 나뭇잎지뢰의 형상도 최초로 공개했다. 이 지뢰는 나뭇잎 모양으로 위장한 형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는 당부했다. (참고: 연합뉴스, 7월 17일) 📰

## “북한 열차관광도 재개… 러 관광객 54명 기차 타고 나선으로”



〈북한 라선시로 기차여행 떠나는 러시아 관광객〉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여객열차 운행 재개 움직임에 맞물려 열차 관광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월 20일 러시아인 관광객 54명이 전날 북한 라선(나선)행 열차를 타고 러시아 하산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가 북한 당

국의 허가를 받고 마련한 관광 프로그램이다. 관광객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모여 버스를 타고 하산 역으로 이동해 검문소를 통과한 뒤 열차를 타고 북한에 입국했다. 북한 철도는 나선에서 54km 떨어진 하산까지만 갈려있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면 버스나 러시아 열차를 타고 하산으로 와야 한다.

이번에 북한을 찾은 관광객들은 나선시에 3박 4일간 머물며 사향산, 비파섬, 두만강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관광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블라디보스토크 거주자이고, 모스크바, 칼리닌그라드, 하바롭스크 등에서 온 이들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2월 러시아 단체 관광객 입국을 허용해 지금까지 600여명이 북한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 자유아시아방송 RFA, 7월 19일) 📰

## 중, 한국의 ‘탈북민 보호’ 권고 거부… “경제적 이유 불법 입국”

중국이 7월 1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에 대한 답변서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을 보호하라는 한국의 권고를 거부했다.

중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면서 한국과 체코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은 지난 1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UPR에서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 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체코도 중국에 '북한 출신 난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냈다.

중국은 '강제송환 금지원칙과 같은 국제규범을 존중하라'는 한국의 권고에 대해선 “수용하며 이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참고: 연합뉴스, 7월 11일) 📰

##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개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의 첫 기념식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해외 탈북자 강제 복송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복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북민 ‘정착·역량·화합’을 강조하며 탈북민 대상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웬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웬비어, 동독 출신의 첫 독일 대통령인 요아힘 가우크 등 해외 유명인사들도 영상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행사에서는 탈북민 지원에 헌신해 온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훈련원 이사장, △마순희 학마을자조모임 대표, △위드 봉사단에 훈장과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탈북민들의 꿈에 대한 영상 에세이 시청,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과 남북 청소년이 함께하는 공연이 준비됐다.

이번 행사 슬로건은 ‘자유를 향한 용기, 통일로 가는 여정’로 기념식에는 탈북민 정착지원 봉사자와 정부·국회·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근거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짜인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정해졌다.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국내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북한 인권 포럼을 비롯해 북한 음식 체험, 전통 공연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도 포함됐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지난해 북한 무역 규모,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중 비중 98.3%




〈최근 10년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추이 (코트라)〉

지난해 북한이 국경 봉쇄 정책을 완화하며 대외 무역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은 가발·조화 등이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표한 '2023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74.6% 증가한 27억7천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고 국경 봉쇄 정책 완화 등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104.5% 증가한 3억3천만달러, 수입은

71.3% 증가한 24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 적자는 2022년 12억7천만달러에서 지난해 21억2천만 달러로 67.1% 증가했다. 이 중 중국과의 교역이 98.3%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북한 교역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인데,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와 정제유 같은 광물류였다. 지난해 북한의 광물류 수입액은 전년보다 13.4% 감소한 4억5049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18.4%를 차지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새의 깃털이나 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조제우모)이었다. 지난해 이 품목의 수출 규모는 1억6766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51.6%를 차지했다. 전년(1179만달러)에 비해 14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중국에서 머리카락이나 깃털·솜털 등 원재료를 사들여 가공한 뒤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이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 경향신문, 7월 21일) 



## 쿠바 주재 北외교관 리일규 참사 망명... 북 엘리트 탈북 이어져



〈국내 언론과 인터뷰하는 리일규 전 쿠바 북한 대사관 참사〉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리일규(52) 참사가 작년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리 참사는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인 남미통이다. 그는 직무 평가 등으로 북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을 겪다가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참사는 탈북 전까지 쿠바 대사관에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

다. 외교관의 탈북이 확인된 건 2019년 7월 조성길 주이탈리아 대사대리, 같은 해 9월 류현우 주쿠웨이트 대사대리 이후 처음이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북한의 해외 주재관 교체가 이뤄지면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던 엘리트층의 탈북이 이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엘리트 계층’ 탈북민은 10명 내외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경 통제로 작년 전체 탈북민 입국 인원이 2017년의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해외 주재원 탈북은 이어진 것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총 10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탈북민 총 99명이 국내에 입국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북, 오물풍선 360여개 부양... 경기 북부 110여개 낙하

북한이 7월 21일 오후 5시까지 대남 오물 풍선 360여개를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동참모 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이 현재까지도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으며, 이 중 11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했다. 풍선 속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였으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9번째다.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다. (참고: 연합뉴스, 7월 21일)

**1**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준동맹관계로 격상시키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차기 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놓이게 하기 위해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가 핵군비 경쟁이라는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 해외 북한선교현장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간첩혐의로 체포되신 백 선교사님의 구금기간이 9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백 선교사는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수감 중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던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북한 주민 의식 변화가 복음을 수용하는 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올해 초 오랜 기간 임금 체불에 반발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출신성분과 북한의 철저한 통제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해외 북한노동자 사태는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당국에 책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당과 수령, 국가에 충성하는 것만을 배우고 알았던 북한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당과 수령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믿었던 국가로부터 실망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강제 북송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10월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북송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송된 신자들과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 북한 기도 제목

**5**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억류된지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들의 구명을 위한 교계의 각급 단체의 성명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가 언론을 통해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들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6** 북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 내 지하교회들이 적발되는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행방이 묘연해진 가구들을 고려할 때 예상 피해 규모가 어림잡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그 강도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끔찍한 악행을 중단하고 회개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선교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국경지역의 현장 사역자와 북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제목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현장 사역자 A는 북한 사람들을 돌보는 가운데 굴하지 않는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헌신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북한 사역을 힘 있게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습니다. 현장에서 양육 받은 성도들이 고향에서도 안전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제 3국에서 얼마 전 복음을 전해 듣고 양육을 받기 시작했던 북한 여성 '은하' (가명)씨가 암 말기인 것이 뒤늦게 발견되어 긴급하게 기도제목들을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두 손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4년 7월 31일

2024 머스카슬론 한국대회

# CAMP PRAY RUN!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계시록 3:2

24. 10. 8(화) - 10(목)



장소

경기도 연천 고대산 캠핑 리조트

참가비

모금 참가자 100만원  
일반 참가자 30만원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해외참가자 40명과 함께 합니다.

모집기간

1차 8월 2일(금)  
2차 8월 30일(금)

일정

연천 땀땀기 기도회  
캠핑(고대산 캠핑 리조트)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대회등록

산악 하이킹 (20km, 40km, 60km)  
산악 마라톤 (10km, 20km, 42km)  
산악 자전거 (100km)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아래 QR코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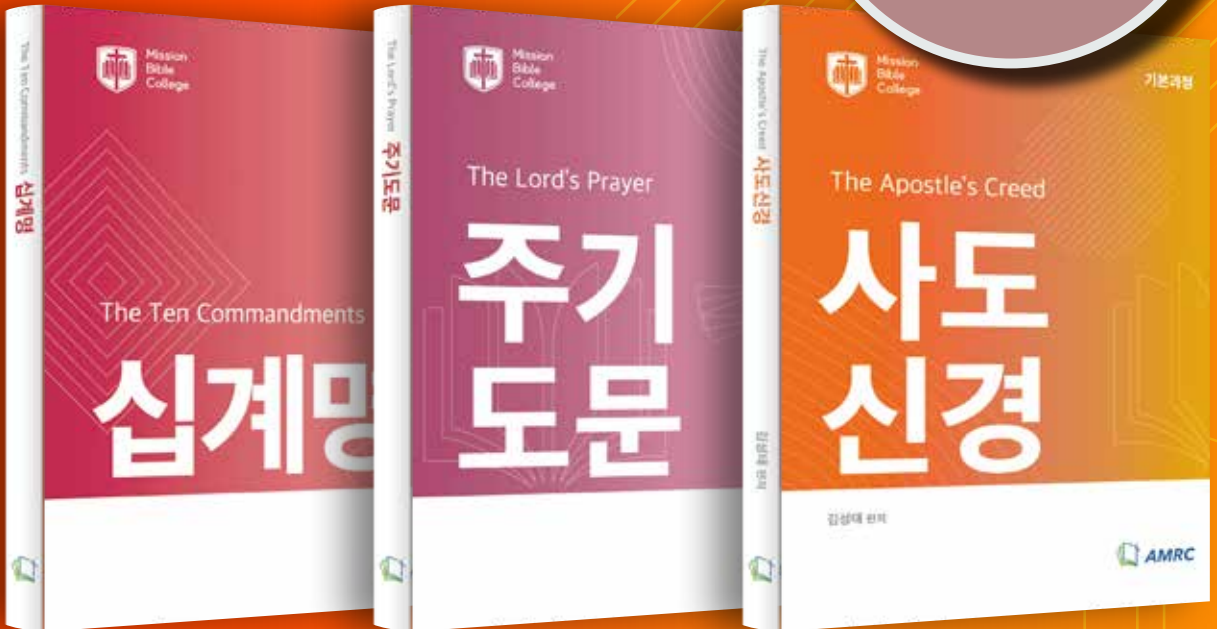
Mission  
Bible  
College

# 성경대학시리즈

##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제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